

불안유형과 좋아하는 가수의 의상간의 상관연구

- 여자중학생을 중심으로 -

이 소정 · 이 인자*

건국대학교 대학원 의류학전공 석사 · 건국대학교 생활문화대학 의상학과 교수*

The Correlation between the Type of Anxiety and the Favorite Singer's Clothing

- With the middle schoolgirl-

So-Jung Lee · In-Ja Lee*

Department of Clothing, Graduate School of Kon-kuk University, Master.
Department of Clothing, Kon-kuk University, Professor.*

ABSTRACT

Because adolescents are much inflicted with the sense of obsession in endless competition with their peers, the costume of the pop singers relieving this agony and anxiety is becoming the object of imitation more than that of any other entertainer. In this perspective, it was thought that it was very necessary to attempt to investigate what relationship sense of mental anxiety the costume singers recently have worn had with adolescents sense of anxiety.

The anxiety questionnaire used by Chu, Young-sook and Kim, Jung-hui and the questionnaire drawn up as the result of the pilot-test and the pre-test were used, and the questionnaires drawn up by a total of 228 middle schoolgirls in seoul were used as final data of annalysis. Of them, the anxiety questionnaire was made up of 8 sub-scales, such as classic · social · morbid · learning, examination · school record · poverty · war and other to anxieties. In order to survey the overall content concerning the costume of the singers preferred by teenagers, the other questionnaire presented three variables such as musicality, fashionability and dance as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singers, and hiphop style, tidy style and sexy style of clothing as the style of clothing preferred of singers' clothing. The importance, fashionability and imitability of clothing were investigated as variables in relation to singers' clothing behavior.

The SPSS PC+ program was used as the analytic method of data which were tested by the frequency analysis, Duncan's multiple anaylsis of variance, t-test and so on.

As a result of investigation, middle schoolgirls having a high level of learning and examination

anxieties preferred the singers excellent in musicality while middle schoolgirls having a lower level of classic anxiety preferred the singers excellent in fashionability and dance wearing the hiphop style of clothing. And it was shown that middle schoolgirls having a lower level of classic anxiety preferred the singers wearing the clothing of sexy style. In the light of these results, it was shown that there was the correlation between anxiety and clothing preference. Accordingly, it is thought tha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achieved to some extent.

Key Word : type of anxiety(classic · social · morbid · learning, examination · school record · poverty · war), singer's clothing, middle schoolgirl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 시기는 독립성의 확보, 적절한 성적(性的) 적응, 친구 관계의 협조와 동일시, 그리고 직업의 선택 및 도덕관과 가치관의 체득 등 자기 주체성을 형성(김성태, 1980)하게 되므로, 인간 발달의 결정적인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청소년들은 근대사회의 지위분이 신분에 의해서가 아니라 개인의 능력과 업적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근대사회의 아동과 청소년은 업적달성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게 되었다.(김희복, 1992)

이런 경쟁의 그물 속에서 생활하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생활시간사용에 대한 연구들에서 보면 이정덕(1991)은 과거에 비해 청소년들의 대중매체 접촉시간이 현저하게 늘어가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현대는 매스컴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대중매체를 항상 접하며 살고 있다. 이를 매스컴은 아직 정신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쳐서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연예인의 헤어스타일이나 의복 스타일이 쉽게 유행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수들의 의상은 그 어느 연예인의 의상보다 더욱더 모방의 대상이 되어 가수들은 음악과 더불어 의상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근래 가수들이 즐겨 입는 의상이 청소년들의 심리적 불안감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되며 연구결과는 청소년의 정서를 파악할 수 있고, 대중매체가 청소년의 의복생활에 끼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학부형이나 청소년 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두었다.

1. 여자중학생의 전반적인 불안수준과 불안유형을 알아본다.
2. 불안유형과 좋아하는 가수의 특성과의 관계를 알아본다.
3. 불안유형과 좋아하는 가수의 의상스타일간의 관계를 알아본다.
4. 좋아하는 가수의 의상스타일과 복식행동 변인간의 관계를 알아본다.
5. 입고싶은 의상과 복식행동 변인간의 관계를 알아본다.
6. 그밖에 부가적인 관심, 즉, 좋아하는 가수, 선호하는 스타일, 입고싶은 스타일에 대해 알아본다.

II. 이론적 배경

1. 불안의 개념

불안에 대한 인식은 19세기 이후에 나타나게 되었다. 19세기 이전 Freud가 출현하기 전까지의 불안의 문제는 철학적 결과로만 간주되었으나, Freud 이후 불안의 연구는 자연과학 분야로 관심을 갖게 되면서, 불안의 개념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그리하여 Freud(1936)는 불안의 의미를 심리학적 범주 안에서 설명하였는데, 불안을 유기체의 불쾌한 정서에 의하여 발생하는 불안 조건으로 규정하였으며 또한 불안이란 자아기능의 하나로서 절박한 위험의 기원에 대하여 개인을 각성시키는 것이며 개인으로 하여금 적절한 방식으로 반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불안은 사회의 어떤 분야에서 어떤 형태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에 따라 불안의 해석은 달라질 수 있다.

Adler는 생의 모든 면에서의 불안전감과 부족감에서 생기는 열등감을 불안이라고 보고 인간의 본능적인 열등감을 보상하려는 노력에 의해 문명이 발달했다고 보았다. 또 불안한 사람은 익숙해진 상황에서 벗어나면 곧 두려움을 느끼고 이러한 불안은 대인관계를 잘 이루어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인생 목표의 달성을 위한 기초 작업을 방해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사회적 관계에서 불안이 조성되기도 하지만 개인의 인간적 유대를 통해 불안이 해소될 수도 있다고 믿었다.(전향희, 1992)

이상의 내용에 의하면 불안은 무엇인지 모르는 내, 외적으로부터의 위협에 대해 자신이 파국 상태에 빠질지 모른다는 예측에 의해 생기는 정서반응이며 자아기능의 하나이다. 경쟁 사회나 문화가 불안 요인에 큰 역할을 하며 대인관계나 사고의 혼돈을 초래한다. 그리고 불안도 과거의 경험이나 습관

에 의해 학습되며 불안의 해소 방법도 학습된다고 볼 수 있다.

2. 불안과 의복행동

불안은 모르는 위협에 대한 예감에서 생기기 때문에 주위 일상사에서 접하는 모든 난관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지식 정도나 습관에 따라 불안의 유무, 정도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 위협에 대한 신호로서의 불안은 개인과 그를 둘러싼 환경과의 접촉을 어렵게 함으로써 사회화 과정을 어렵게 하는데 이 위협을 피할 것인지, 아니면 목격했던 대로의 행동을 할 것인지 결정하게 되므로 불안은 인간 행동의 원인이 되는 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의복 행동과 불안간에는 상당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M.Lapiskiy는 Taylor의 불안검사척도를 참고로 사회적 안전감-불안감을 측정하는 검사를 작성하여 의복의 가치관과의 관련성 여부를 연구했다. 그 결과 사회적 불안감이 높은 사람은 의복을 사회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고 사회적 가치가 높았다. (Laubach, 1972)

Creekmore 와 Humphrey, Klassen(1971)은 자기 개념의 불안정성(instability)과 불안감(insecurity)은 유사성을 지닌다고 전제하고, 불안정한 자기개념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은 의복행동 변인 중에서 구매 및 관리에 관심이 크고 자기존중감을 가진 청소년들은 심미성을 중요시한다고 했다.

Horn(1975)은 개성적인 의복을 착용하는 사람은 사회나 집단의 압력을 극복하기 위하여 심리적 안전성이 높으며, 개인적 확신에 대한 강한 신념을 지녔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에 동조성이 높은 사람은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이라고 지적하였다.

국내의 선행연구에서는 이인자(1984)의 연구에서 정신장애인의 의복 디자인이나 유행에 대해 특히 관심이 많았으며 의류정돈성에 관한 욕구가 크

게 나타났다.

강혜원(1974)은 대학생의 의상행위와 성격특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사회적 안정감이 높은 사람은 의상에 관심이 높았고 사회적 불안감이 높은 사람은 추종성에 관심이 높았다고 했다.

전향희(1992)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불안유형과 의류상점선택간의 관계 연구에서 여대생들이 전반적으로 불안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상점선택시 의복스타일과 광고·판촉요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3. 십대와 매스미디어

90년대 들어와 우리주위 문화는 「행동하거나 사색하는」 문화가 아닌 「보고 느끼는」 문화로의 급성장을 가져왔다. 책보다는 영화에 관심이 끌리고 가요도 듣기만 하는 것보다는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즐기기를 원한다.

오늘날 젊은 층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감성주의적 경향도 현대 사회적 특징과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와 같은 감성주의 경향은 최근 들어 급성장을 보인 시각문화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시각문화에 민감하며 강력한 수용력을 가진 세력이 젊은 세대라고 볼 때, 영상문화 세대로 표현된 그들의 특징을 잘 설명해 준다. (염혜정, 1991)

십대들의 여가생활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여가생활이 충분치 않지만'(67.2%) '시간이 나면 주로 TV를 본다(섬유저널, 1995)에서 알 수 있듯이 십대들이 접하게 되는 많은 유행정보원 중에서 TV는 보편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주정보원으로서 중요한 매체이며 특히 청소년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위환경에 의해 자극 받기 쉽고,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청소년들은 자신이 우상화하는 인물과 내면적으로나 외면적으로 닮아지고 싶어하는 동조심리가 작용하여 그로써 심리적인 만족감을 얻는다. 그러므로 청소년들 사이에서 연예인의 특

이한 말 한마디가 유행이 되는가 하면 인기 높은 연예인의 헤어스타일이나 의복 스타일이 쉽게 유행되는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관습상, 도덕상 받아들여지지 않던 의복도 연예인의 착용으로 인하여 기존의 사고의 변화를 가져와 대중에게 패션의 품목으로 받아들여지고 인기인의 개성을 표현하는 패션 이 그와 동일시되려는 청소년은 물론 일반인들에게 까지 모방되어 새로운 스타일의 유행으로 발전하게 된다(문선정, 1995)고 한다.

이처럼 TV나 영상매체 등의 시각매체의 보급과 발달로 인한 슈퍼스타들에 의해 십대들의 패션의식이 자극 받게 되었다.

이것은 전세계의 십대들의 그루피족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루피족이란 말은 스타의 주변을 맴돌며 그 스타를 독식하고 심지어는 그 스타의 삶과 죽음에 함께 하는 아주 극렬적인 팬을 가리킨다. 이들은 그 스타와 비슷한 옷차림, 비슷한 말투나 행동거지를 보인다. 모든 청소년들에게 그루피, 스타 신드롬이 다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만큼 그들에게 연예인은 동조의 또 다른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고 박정숙(1991)은 그의 연구에서 지적하였다.

4. 십대 가수들의 패션

십대가수들이 십대 패션을 주도한다고 볼 수 있다. 요즘 십대들에게 있어서 연예계의 모든 부분이 관심의 초점이 되지만 그중 음악은 십대와 떼려야뗄 수 없는 불과 분의 관계이다. 이 같은 이들의 영향력으로 음반 판매에 있어서 대부분의 고객이 십대들이며 이들에게 인기 있는 십대 가수들의 옷과 구두, 헤어스타일, 액세서리 등은 또래 팬들에게 순식간에 퍼진다.

이들은 음악을 들더라도 뮤직비디오를 봐야 느낌을 받으며 이것은 음악조차 듣는 것이 아니라 보는 놀이의 장르가 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처럼 이들에

게는 대중 매체의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특히 TV의 인기 있는 프로나 배우의 옷차림은 금방 십대들의 옷차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이들은 모방성이 강해 유행하면 바로 선택하는데 블루를 심하게 타, 패션업계에서 제시하는 트렌드와는 거의 무관하게 자기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을 찾는다. 과거 텔런트와 가수 등 연예인들의 옷차림은 일반 소비자와 다른 세계였으나 최근의 십대는 이를 동일하게 받아들인다. 일본과 미국의 주니어는 그보다 한 단계 넘어서 할리우드 스타들의 옷뿐 아니라 그들의 생활스타일을 그대로 흉내내는 것이 최근 유행이라고 한다. (섬유저널, 1995)

92년 F/W 시즌 서태지와 아이들을 광고모델로 캐스팅한 반도 패션의 「티피코시」는 2백90억원의 매출로 전년대비 더블신장의 판매고를 올렸으며 콘서트 장이나 TV방송에 서태지가 입고 출연했던 티셔츠는 대부분 완전히 판매되었고 중저가 캐주얼웨어로서 객단가가 가장 높았던 10만원이 넘는 티피코시 더블코트는 일명 「서태지코트」로 불려지며 역시 전부 판매되었다고 한다. (섬유저널, 1995)

이와 같이 십대들이 가수 또는 연예인들의 패션을 흉내내는 것은 또래 집단에 대한 귀속 의식의 표현이며 패션은 곧 신세대 문화의 한 면을 나타내고 있다. 요즘 십대들에게 대표적으로 인기 있는 패션인 힙합바지는 헐렁한 빅사이즈 패션의 근원으로 힙합뮤직으로부터 유래하여 특인이 좋아하는 소위 엑스라지 사이즈의 헐렁한 패션이다. 힙합패션은 힙합댄스 랩송과 어우러진 하나의 문화로서 거리의 먼지는 혼자 다 쓸고 다닐 정도로 길게 입으며 허리 36인치가 기본인 사이즈로 큰 바지에 길게 늘어뜨린 벨트, 헐렁한 박스 티에 체크남방, 바지 밑단에 덮이지 않을 정도의 커다란 신발이 묘하게 어울린다. 바지를 골반에 걸치도록 내려입다보니 배꼽이 드러난 허리에 체인 벨트를 두르거나 멋진 팬티가 살짝 보이게 입는 등 응용 패션이 뒤를 잇는다. (동아일보, 1997)

가수들의 패션은 자기 노래의 이미지를 담는 그릇이라고 볼 수 있다. 가수들의 패션은 노래의 인기 순위가 급변하는 만큼이나 수시로 달라지는데 이것은 생존 경쟁이 치열한 현실에서 그만한 실Hell경신과 개성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신세대 가수들의 패션은 이처럼 스타의 파급력을 통해 하나의 문화를 이루어 간다. 노래와 패션은 대중문화의 첨단을 만들어 내는 셈이다.(동아일보, 1997)

5. 십대들의 의복행동

요즘 십대들은 스타가 광고하는 옷을 많이 사고 그들의 헤어스타일을 모방하며 가수들이 출시하는 새로운 음반이 몇 백만 장을 돌파하여 수퍼스타가 되게 하는 주도세력이 되고 있다.

이들의 패션에 대한 성향을 알아보면 우선 주관이 뚜렷하지 않다. 모방하고 싶은 심리는 유행성향을 여과없이 막바로 받아들여 이를 추종하는 것 같다. 따라서 그때그때 사회적 배경과 이슈에 따라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는 세대가 바로 십대이다. 제일 기획이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자료에 의하면 이들의 패션에 대한 의식은 '주위사람들이 무슨 옷을 입었는지 눈여겨본다'가 54.5%로 다른 어느 계층보다 높았고 '두드러지는 옷이라도 마음에 들면 입는다'도 가장 높았다. '새로운 유행은 빨리 받아들인다' 역시 십대가 가장 높으며 '옷, 머리모양, 액세서리 등을 바꿔 놀 새롭게 보이려고 애쓴다'는 항목도 20.1%로 20대보다(14.7%) 높았다고 한다.(섬유저널, 1995)

위에 자료에서 보듯이 이들의 패션에 대한 개념은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같은 동료 집단의식을 통한 안정의 추구라는 두 가지 모순된 욕망을 두드러지게 나타낸다. 즉 이들은 새로운 것을 찾음과 동시에 그들 집단 속에서 소속감을 느끼며 안정感을 찾으려 한다는 것이다.

Hurlock(1973)은 청소년기에는 동료집단의 구성

원과 유사하게 보일 때 소속감을 느끼며 자신감을 강화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청소년기 의복에 있어서는 동료집단의 의복기준에 일치하는 것을 가장 주된 것으로 보았다.(박정숙, 1991)

청소년들은 칭찬을 받으려고 하고 자기를 주장하고 인정받고 싶은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극단의 스타일이나 두드러진 색의 의복을 입기도 한다. 이 시기에는 용모에 관심이 많고 추상적인 개념보다도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의복과 의모로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 이러한 성질이 의복과 신체적 의모에 대한 흥미를 높인다고 할 수 있다. 중고생의 자신감은 용모에 대한 자기자신의 평가에 영향을 받는다. 특히 동료 집단에 동조하게 되면 그 수단의 하나로서 의복이 사용된다고 볼 수 있다.

III.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 대상

본 연구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여중생으로 제한하였으며 표본은 강남의 S여중 125명과 강북의 Y여중 125명으로 총 250명이다. 이중 228명의 설문지가 회수되어 최종분석자료로 사용되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징은 〈표 1〉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거주지역을 보면 강남이 113명, 강북이 115명이며 연령분포는 13세에서 16세까지로 13세가 7.9%, 14세가 27.6%, 15세가 30.7%, 16세가 33.8%로 대부분이 14세에서 16세까지였다. 아버지의 직업은 판매직(소도매상, 중개인, 소규모 자영업자등)이 24.1%, 사무직(회사 일반사원, 위관급 장교, 6·7·8·9급 공무원, 경찰, 소방공무등)이 27.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비숙련직(일일 노무자, 수의, 청소원, 운반원등)이 2.2%, 반숙련직(소농, 공원, 이발사, 요리사, 수금원, 상점점원등)이 2.2%로 가장 낮아 대부분이 중상층의 가정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분포

내 용	구분	N	%
		강남	강북
거주지역	13세	18	7.9
	14세	63	27.6
	15세	70	30.7
	16세	77	33.8
연 령	전문직	45	19.7
	관리직	31	13.6
	사무직	62	27.2
	판매직	55	24.1
	숙련직	25	11.0
	반숙련직	5	2.2
	비숙련직	5	2.2
계		228	100

2. 측정 도구 작성

(1) 설문지

십대들이 좋아하는 가수들의 의상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pilot-test와 pre-test에 의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좋아하는 가수의 특성으로 음악성과 패션성, 댄스에 관한 3가지의 변인을, 좋아하는 가수의 의상스타일에서 3가지 스타일, 즉 힙합스타일, 쟈켓과 바지 등의 단정한 스타일, 비치거나 노출이 심한 섹시한 스타일의 의상을 제시하였으며 그 외에 복식행동 변인으로 가수들에게 있어서 의상의 중요성과 가수들이 입는 의상의 유행성 그리고 그 의상들에 대한 십대들의 모방성 등에 관한 문항 등을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총 26문항과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배경을 알기 위해 연령과 아버지 직업에 관한 2문항은 자율기술식응답법으로 구성되었다.

(2) 불안검사

불안에 관한 측정 도구로는 김정희와 주영숙(1991)의 공동 연구로 만들어진 '불안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지는 총 120문항으로 각 8개의 하위

불안영역당 1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4점척도를 사용하였다.

이것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고전적 공포 불안(Classical Phobia & Anxiety : CLA)
- 2) 사회·대인관계에 대한 불안(Social·Interpersonal Anxiety : SOC)
- 3) 질병·노환·죽음에 대한 불안(Disease·Aging and Death Anxiety : DIS)
- 4) 학습·시험·능력에 대한 불안(Learning·Examination & Scholastic Anxiety : LEA)
- 5) 성적 부적응·이성 거부에 대한 불안(Anxiety over Sexual Inadequacy & Rejection by the Opposite Sex : SEX)
- 6) 빈곤에 대한 불안(Poverty Anxiety : POV)
- 7) 전쟁에 대한 불안(War Anxiety : WAR)
- 8) 기타 정서적 불안(Misscellaneous Anxiety : MIS)

3. 자료 수집 및 분석

설문지는 1997년 5월 6일부터 5월 13일까지 서울 시내 여자중학생에게 250부를 배포했으나 247부가 회수되었다. 그 중 불성실하게 답변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228부가 분석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설문 분석방법은 SPSS PC+를 이용하여 빈도분석, Duncan의 다중범위 분석, t-test 등에 의해 유의차를 검증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여자중학생의 불안유형별 불안수준

서울 시내 여자중학생의 불안감을 불안유형별로 <표 2>에 제시하였다. 60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규준 점수 30점 이하이면 불안이 거의 없는 것이고 30점

이상이면 불안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서울 시내 여자중학생들의 불안 유형별 불안을 평균 점수로 보았을 때 27점에서 최고 35점을 나타내므로 불안감이 거의 없거나 약간 있는 거의 정상수준이라고 보아진다.

이 중 각각의 유형별 불안은 거의 차이가 없었지만 그中最 높은 불안은 역시 학습·시험·능력에 대한 불안으로, 가장 높아 여중생들 역시 고등학생 못지 않게 성적이나 진학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명됐다. 두 번째로 높은 불안은 사회·대인관계에 대한 불안으로 사춘기를 겪고 있는 여중생들에게 있어서 친구나 이성간의 고민, 학교 생활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것으로 보아 요즘 사회 문제로 등장하는 학교 폭력배나 가출 등이 이 불안에서 연유된 것으로 보아진다.

이 조사에서 가장 낮은 불안감을 보인 빈곤에 대한 불안은 요즘 여자중학생들이 경제적으로 많이 안정된 환경에서 생활하여 가난이나 궁핍에 대한 불안감을 전반적으로 못 느낀다고 할 수 있어 과거에 비해 많이 윤택해진 사회구조를 엿볼 수 있다.

<표 2> 여중생의 불안유형별 불안수준

	M	SD
CLA(고전적 공포 불안)	32.11	7.24
SOC(사회·대인관계 불안)	34.04	6.48
DIS(질병·노환·죽음 불안)	33.53	6.25
LEA(학습·시험·능력 불안)	35.99	6.87
SEX(성적 부적응·이성거부 불안)	32.06	6.43
POV(빈곤 불안)	27.33	5.81
WAR(전쟁 불안)	33.37	8.89
MIS(기타 정서적 불안)	30.73	7.22

2. 불안유형과 좋아하는 가수의 특성과의 관계

<표 3>에서는 여자중학생들이 가수들을 좋아하

는 이유로 그 가수의 음악성이나 완벽하게 코디한 패셔너블한 의상, 뛰어난 춤솜씨, 이 세 가지를 범인으로 하여 여자중학생들의 불안유형별 불안과 가수를 좋아하는 변인으로서 상관관계가 있는가를 알아보고자하였다.

가수를 좋아하는 이유를 음악성이라고 한 여자중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학습, 시험 불안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그 집단간의 차이를 검증해 보면 LEA 上집단, 즉 학습, 시험불안이 높은 집단은 下집단 즉, 학습, 시험불안이 낮은 집단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가수를 좋아하는 이유를 패션성이라고 한 여자중

<표 3> 불안유형과 좋아하는 가수의 특성과의 차이검증

	음악성		패션성		랜스	
	평균	duncan	평균	duncan	평균	duncan
CLA	上	3.55		3.55	A	3.60
	中	3.33		2.88	B	2.74
	下	3.30		3.03	AB	2.88
	F비	.45		2.51*		4.03*
SOC	上	3.61		3.19		2.92
	中	3.33		2.89		2.82
	下	3.26		3.12		2.83
	F비	1.07		1.49		.05
DIS	상	3.30		2.90		3.00
	중	3.33		2.98		2.84
	하	3.34		2.96		2.79
	F비	.01		.03		.20
LEA	上	3.40	A	2.97		2.95
	中	3.40	AB	2.99		2.84
	下	3.04	B	2.89		2.95
	F비	3.62**		.17		.37
SEX	上	3.70		2.70		2.90
	中	3.32		3.03		2.85
	下	3.33		2.89		2.79
	F비	3.33		.77		.10
POV	上	4.00		3.50		4.00
	中	3.43		3.11		2.86
	下	3.28		2.90		2.80
	F비	1.61		1.39		1.60
WAR	上	3.47		3.15		2.95
	中	3.32		2.90		2.77
	下	3.31		3.01		2.88
	F비	.40		.75		.52
MIS	上	3.37		3.56		3.43
	中	3.32		2.97		2.79
	下	3.37		2.92		2.82
	F비	.02		1.65		1.69

*p<.05 **p<.01

학생들은 고전적 공포 불안 즉, 특정한 사람, 장소, 대상 혹은 상황에 대하여 지속적이고도 불합리한 두려움이 생겨 회피행동을 하게 되는 상태와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집단간의 차이를 검증해 보면 CLA上집단 즉, 고전적 공포 불안이 높은 집단과 CLA中, 즉 고전적 공포 불안이 적당히 있는 집단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가수를 좋아하는 이유를 댄스라고 한 이들도 역시 고전적 공포 불안감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CLA上 집단과 CLA中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CLA上집단과 CLA下집단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로써, 불안 유형과 좋아하는 가수들의 특성과의 차이검증에서는 학습, 시험불안이 높은 여자중학생일수록 음악성이 높은 가수를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전적 공포 불안이 높은 여자중학생일수록 패션성과 댄스가 뛰어난 가수를 선호하였다.

3. 불안유형과 좋아하는 가수의 의상스타일과의 관계

〈표 4〉는 불안유형과 좋아하는 가수의 의상스타일을 살펴보았다. 좋아하는 가수의 의상스타일로는 힙합스타일, 자켓과 바지등의 단정한 캐주얼 정장 그리고 노출이 심하고 비치는 섹시한 스타일을 범인으로 선정하였다.

불안유형과 좋아하는 가수의 의상스타일과의 집단간의 차이검증에서 힙합스타일과 섹시한 스타일이 고전적 공포 불안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집단간의 차이로 검증해보면 먼저 고전적 공포 불안에 따른 힙합스타일과의 집단간의 차이는 CLA上집단 즉, 고전적 공포 불안이 높은 집단은 CLA中집단 즉, 고전적 공포불안이 적당히 있는 집단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또한 CLA下집단 즉, 고전적 공포 불안이 낮은 집단과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고전적 공포 불안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CLA上은 CLA下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로써 고전적 공포 불안감 즉, 특정한 사람, 장소, 대상 혹은 상황에 대하여 지속적이고도 불합리한 두려움이 생겨 회피행동을 하게 되는 상태의 불안감이 높은 집단일수록 가수들의 의상 중 힙합스타일을 좋아하는 반면 고전적 불안감이 낮은 집단에서는 섹시한 스타일의 가수의상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4. 좋아하는 가수의 의상스타일과 좋아하는 가수의 특성간의 관계

〈표 5〉에서는 좋아하는 가수의 의상스타일로 C1: 힙합스타일 C2: 섹시하고 야한 스타일 C3: 단정한 캐주얼 정장 C4: 청바지와 티셔츠 등 4가지와 이를 4가지 스타일에 따른 좋아하는 가수들의 특성인 음악성, 패션성, 댄스와의 검증에서 패션성과 댄스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패션성은 섹시하고 야한 스타일C2를 선호하는 여자중학생들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힙합스타일C1을 선호하는 여자중학생들에게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고 티셔츠와 청바지C4를 선호하는 여자중학생들에게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좋아하는 가수의 특성 중 하나인 댄스는 섹시하고 야한 스타일C2를 선호하는 여자중학생들에게 가장 높게 나타났고 티셔츠와 청바지C4를 선호하는 여자중학생들에게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패션성, 댄스 모두 C2 즉 섹시한 스타일에서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여자중학생들에게 있어서 모두 섹시하고 야한 스타일의 의상을 입는 가수를 좋아하는 학생들일 경우에 좋아하는 가수의 특성은 음악성보다는 패션 감각이 있어 의상을 잘 갖추어 입는 가수나 춤을 잘 추는 가수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 불안유형과 좋아하는 가수의 의상스타일과의 차이검증

		힙합 스타일		단정한 스타일		섹시한 스타일	
		평균	duncan	평균	duncan	평균	duncan
CLA	上	4.10	A	2.80		1.50	B
	中	3.09	B	3.32		2.02	AB
	下	3.25	B	3.16		2.22	A
	F비	3.95*		2.27		3.51*	
SOC	上	3.50		3.34		1.92	
	中	3.18		3.23		2.08	
	下	3.18		3.22		2.08	
	F비	.48		.10		.20	
DIS	上	3.30		2.90		2.40	
	中	3.13		3.32		2.03	
	下	3.33		3.08		2.10	
	F비	.74		2.57		.84	
LEA	上	3.10		3.37		2.00	
	中	3.21		3.26		2.05	
	下	3.20		3.08		2.17	
	F비	.08		.98		.38	
SEX	上	3.50		3.70		2.30	
	中	3.25		3.13		2.06	
	下	3.10		3.37		2.08	
	F비	.62		2.65		.17	
POV	上	3.50		3.00		3.25	
	中	3.28		3.15		1.98	
	下	3.15		3.27		2.09	
	F비	1.65		.52		2.15	
WAR	上	3.11		3.50		1.86	
	中	3.13		3.23		2.01	
	下	3.30		3.18		2.20	
	F비	.58		1.17		1.83	
MIS	上	3.62		3.00		2.25	
	中	3.22		3.32		2.05	
	下	3.14		3.17		2.08	
	F비	.72		1.18		.19	

*p<.05

<표 5> 좋아하는 가수의 의상스타일과 좋아하는 가수의 특성간의 차이검증

	음악성		패션성		댄스	
	평균	dun can	평균	dun can	평균	dun can
C1	3.33		3.24	A	3.16	A
C2	3.00		3.30	AB	3.20	AB
C3	3.31		2.70	A	2.39	BC
C4	3.47		2.11	C	2.21	C
F비	.55		12.50***		16.02***	

***p<.001

5. 좋아하는 가수의 의상스타일과 가수의상의 중요성, 유행성, 모방성간의 관계

<표 6>은 위에서 설명한 C1:힙합스타일 C2 :섹시하고 야한 스타일 C3:단정한 캐주얼 정장 C4:티셔츠와 청바지로 좋아하는 가수의 의상스타일과 가수들에게 있어서 의상의 중요성, 유행성, 모방성을 검증해 보았다. 여기서는 중요성, 유행성, 모방성 모두 좋아하는 가수의 의상스타일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중요성은 가수의 의상 중에서 힙합스타일C1을 선호하는 여자중학생들에게 가장 높게 나왔고 섹시하고 야한 스타일C2를 선호하는 여자중학생들에게 두 번째로 높았으며 가수의 의상 중 티셔츠와 청바지C4를 선호하는 여자중학생들에게 가장 낮았다.

유행성은 힙합스타일C1의 가수의상을 선호하는 여자중학생들에게서 가장 높았고 티셔츠와 청바지 C4를 선호하는 여자중학생들에게서 가장 낮았다.

모방성도 힙합스타일C1의 가수의상을 선호하는 여자중학생들에게서 가장 높았고 티셔츠와 청바지 C4를 선호하는 여자중학생들에게서 가장 낮았다.

즉, 가수들에게 있어서 의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여자중학생들은 가수들의 의상중 힙합스타일을 입은 가수들을 가장 좋아했고 그 다음이 섹시한 스타일 그리고 단정한 스타일, 마지막으로 티셔츠와 청바지 순으로 나타났다. 이 순서는

유행성이나 모방성도 같은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중생들은 가수에게 있어서 의상이 매우 중요하고, 인기있는 가수들이 입는 의상은 유행한다고 믿으며, 그런 의상들을 모방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 좋아하는 가수의 의상스타일과 가수의상의 중요성, 유행성, 모방성과의 차이검증

	중요성		유행성		모방성	
	평균	dun can	평균	dun can	평균	dun can
C1	3.35	A	3.90	A	2.62	A
C2	3.30	AB	3.80	AB	2.60	AB
C3	2.83	B	3.50	B	1.97	B
C4	2.19	C	3.14	B	1.76	B
F비	12.15***		6.52***		13.21***	

***p<.001

6. 입고 싶은 의복스타일과 좋아하는 가수의 특성간의 관계

여자중학생들이 입고 싶은 의복 스타일도 요즘 가장 대중적이고 인기 있는 스타일을 정해 문항을 만들었는데 C1:힙합스타일, C2:섹시하고 야한 스타일, C3:단정한 캐쥬얼 정장, C4:티셔츠와 청바지의 4가지 스타일로 좋아하는 가수의 의상스타일과 같다. 이것을 제시하여 다른 변인 즉, 좋아하는 가수의 특성(음악성, 패션성, 댄스)과 가수들에게 있어서의 의상의 중요성, 유행성, 가수의 의상을 따라 입고 싶은 모방성과 연관지어 집단간에 차이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표 7>은 입고 싶은 의상과 좋아하는 가수의 특성인 음악성, 패션성, 댄스를 검증해 보았다. 결과, 패션성과 댄스에서 유의한 차를 나타냈는데 패션성은 힙합스타일C1을 입고 싶어하는 여자중학생들에게서 가장 높았고 티셔츠와 청바지C4를 입고 싶어하는 여자중학생들에게서 가장 낮았다.

댄스는 힙합스타일을 입고 싶어하는 여자중학생들에게서 가장 높았고 단정한 케주얼정장을 입고 싶어하는 여자중학생들에게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힙합스타일의 의상을 입고 싶어하는 여자중학생일수록 댄스와 패션성이 뛰어난 가수를 좋아한다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

<표 7> 입고 싶은 의복스타일과 좋아하는 가수의 특성
인 음악성, 패션성, 댄스와의 차이검증

	음악성		패션성		댄스	
	평균	dun can	평균	dun can	평균	dun can
C1	3.37		3.31	A	3.21	A
C2	3.08		3.16	AB	3.00	AB
C3	3.31		2.79	B	2.53	B
C4	3.32		2.52	B	2.57	B
F비	.33		8.92***		9.89***	

***p<.001

7. 입고싶은 의복스타일과 가수의상의 중요성, 유행성, 모방성간의 관계

<표 8>은 입고 싶은 의복 스타일과 가수 의상의 중요성, 인기 있는 가수들의 의상의 유행성, 그런 의상을 따라하려는 의상의 모방성을 조종하였다.

<표 8> 입고 싶은 의복스타일과 가수 의상의 중요성, 유행성, 모방성과의 차이검증

	중요성		유행성		모방성	
	평균	dun can	평균	dun can	평균	dun can
C1	3.41	A	3.93	A	2.75	A
C2	3.25	AB	3.75	AB	2.41	AC
C3	2.92	B	3.61	B	2.16	B
C4	2.63	B	3.36	B	1.75	C
F비	8.10***		4.38**		17.31***	

p<.01 *p<.001

이 결과 중요성, 유행성, 모방성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그 중, 가수의상의 중요성은 힙합스타일C1을 입고 싶어하는 여자중학생들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티셔츠와 청바지C4를 입고 싶어하는 여자중학생들에게서 가장 낮았다. 이것은 유행성과 모방성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여자중학생들은 가수들에게 있어 의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인기 있는 가수의 의상은 유행한다고 믿으며, 그런 의상을 모방하고 싶어하며 이런 행동들은 힙합스타일을 입고 싶어하는 학생들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여자중학생의 불안유형과 수준을 알아보고 불안유형과 좋아하는 가수의 의상스타일, 특성 및 가수 의상의 중요성, 유행성, 모방성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여중생 2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김정희, 주영숙의 불안검사지와 연구자가 pilot-test와 pre-test를 통해 만든 질문지를 여자중학생에게 조사하였고 조사방법은 SPSS PC+에 의해 통계처리하였다.

1. 불안 유형과 좋아하는 가수의 특성과의 차이 검증에서 학습, 시험불안이 높은 여자중학생일수록 음악성이 높은 가수를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전적 불안이 높은 여자중학생일수록 패션성과 댄스가 뛰어난 가수를, 좋아하는 가수의 특성으로 꼽았다.

2. 고전적 불안감이 높은 집단일수록 가수들의 의상 중 힙합스타일을 좋아한 반면, 고전적 불안감이 낮은 집단에서는 섹시한 스타일의 가수의상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3. 여자중학생들에게 있어서 섹시하고 야한 스타일의 의상을 입는 가수를 좋아하는 학생들일 경우에 가수를 좋아하는 이유를 음악성보다는 패션 감

각이 있어 의상을 잘 갖추어 입는 가수나 춤을 잘 추는 가수를 좋아한다고 나타났다.

4. 가수들에게 있어서 의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여자중학생들은 가수들의 의상중 힙합스타일을 입은 가수들을 가장 좋아했고 그 다음 이 섹시한 스타일 그리고 단정한 스타일, 마지막으로 청바지와 티셔츠 순으로 나타났다. 이 순서는 유행성이나 모방성도 같은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자중학생들은 가수에게 있어서 의상이 매우 중요하고, 인기 있는 가수들이 입는 의상은 유행한다고 믿으며, 그런 의상들을 모방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힙합스타일의 의상을 입고 싶어하는 여자중학생일수록 음악성보다는 댄스와 패션성이 높은 가수를 좋아한다는 결론을 가지고 온다.

6. 여자중학생들은 현재 가수들 중 HOT를 가장 좋아하며 가수의 의상에서는 힙합스타일을 가장 선호했다. 또한 가수의 의상중 입고 싶은 의상은 강남 일 경우 단정한 캐주얼 정장이 많았고 강북의 여자중학생들은 힙합스타일이 많았다.

이상의 연구 결과 학습, 시험불안이 높은 여자중학생일수록 음악성이 뛰어난 가수를 좋아하고 고전적 불안이 높을수록 패션성과 댄스를 잘하며 힙합스타일을 한 가수를 좋아한다. 그리고 고전적 불안이 낮을수록 섹시한 스타일의 의상을 한 가수를 좋아하는 결과로 보아 불안감과 좋아하는 의상 선호도간에 상관성이 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 본 연구의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인 면이나 사회적인 의식에서 큰 차이가 없는 여중생 집단만을 대상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차이를 파악하는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으므로 본 연구결과의 확대해석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수들의 의복스타일도 유행처럼 급속도로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간을 단위로 계속적인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동아일보(1997), 10대가수 패션 1997, 5, 13일자
- 섭유저널(1995), 수퍼주니어를 주목하라!, 1995, 9월호 p.109-172
- 강혜원(1974), "대학생의 개성과 유행을 중심으로 한 의상행위와 성격특성과의 관계", 연세논총, 제 11집, p.349-374
- 김성태(1980), 「발달심리학」, 서울:법문사, p. 250-251.
- 김정희, 주영숙 (1991), 불안검사, 서울 : 코리안 테스팅센터
- 김회복(1992), "학부모문화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참조
- 문선정(1995), "연예인의 유행스타일 선호도에 따른 유행선도력 및 의복태도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정숙(1991), "한국 청소년의 패션의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염혜정(1991), "한국 신세대의 복식양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유윤희(1994), "학교적응·불안·학업성취간의 관계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 유인선(1986), "불안위계와 레크리에이션이 아동의 시험불안감소에 미치는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동식(1974), 「한국인의 주체성과도」, 서울 : 일지사
- 이성룡(1983), "기독대학생과 불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인자(1988), 「복식사회심리학」, 서울 : 수학사
- 이정덕, 최현 외 3인,(1992), "청소년의 생활시간 사용변화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 가정관리학회지, 제9권 1호, p.203-221,
- 이정식(1990), 「프로이드 정신분석입문」, 서울 :

- 다문, p.118-127.
- 임치경(1985), “노년기 여성의 사회적 불안감과 의복행동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작물학과
- 전창희(1992), “불안유형과 의류상점선택간의 관계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dler, A.(1927), Understanding Human Nature, trans. W. B. Wolfe (New York: The country life press)
- Creekmore, A.M.(1966). Methods of Measuring Clothing Varianles,Micig Agricultural Station Project, No. 783. Michigan State University. p.96.
- Freud, S.(1936) The Problem of Anxiety. New York : W.W. Norton & Company, Inc
- Horn, M. J.(1968) The Second Skin (Boston : Houghton Mifflin Company), p.1-12
- Humphrey, C., Klassen, M and Creekmore, A. M.(1971), Clothing and Self-Concept of Adolescents, Journal of Home Economic, Vol.63, No.4, p.246-250
- Hurlock, E.B.(1973) Adolescent Development, 4th ed(MeGrawHill Kogakusha, Ltd.) pp.168-169
- Lapinsky, M.(1961), Clothing Values and Their Relation to General Values and to Social Security and In Insecur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 Laubach, A.R.(1972), School-Controlled Conformity of Dress for Teenagers and its Relation to Selectes Behaviors and Security and In Insecur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 Maslow, A.H.(1942) "The Dynamic of Psychological Security-Insecurity," Character and Personality, p.331-344